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 특별전 개최

안상혁 | 2026-05-18 10:08:31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계명대 창립 127주년을 맞아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에는 행소박물관이 소장한 식물 길상문 관련 유물 약 70여 점이 소개되는데 주요 전시품으로는 매화가 표현된 조선 후기 꽃과 새 그림, 연꽃이 새겨진 고려시대 청자 항아리, 모란 그림 등입니다.

오랜 세월 인간의 삶과 함께해 온 식물을 주제로 한 이번 특별전은 오는 8월까지 계속됩니다.

저작권자 © 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상매일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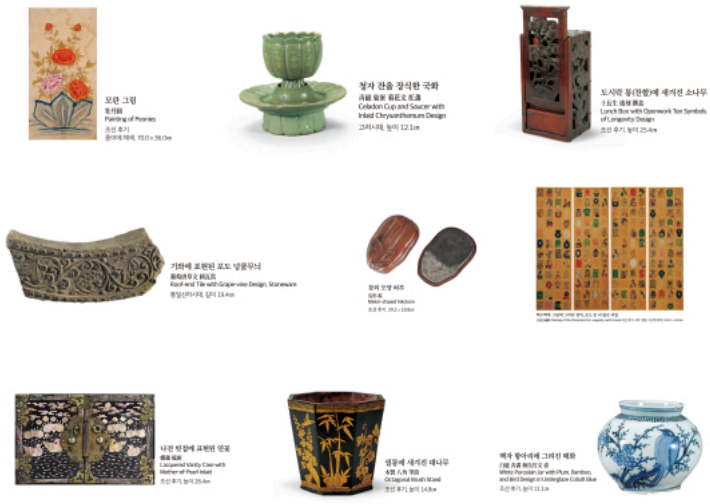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 특별전 개최

조필국 기자 cpkcomkid@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6.05.18 19:10

남궁현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식물과 상징 특별전 유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계명대 제공

[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대학 창립 127주년을 맞아 식물에 담긴 상징과 인간의 삶의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연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총동창회와 함께 특별전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를 오는 8월 31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특별전시실 동 혔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계명대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5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식물과 상징 특별전을 개최한다. 계명대 제공

이번 전시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식물이 지닌 상징성과 길상문(吉祥文)의 의미를 통해 인간이 꿈꿔온 이상적 삶과 소망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 기·공예품 등 식물 길상문 관련 유물 70여 점이 공개된다.

대표 전시품으로는 조선 후기 화조도, 연꽃 문양이 새겨진 고려청자 항아리, 모란도, 소나무 문양 찬합, 대나무 그림, 낭곡 최석환의 포도 그림, 복도 등이 포함됐다.

전시 작품들은 식물이 단순한 자연 소재를 넘어 인간의 가치관과 염원을 담아낸 상징으로 활용돼 왔음을 보여준다. 연꽃은 청정과 깨달음, 매
고결함, 모란은 부귀영화를 의미한다. 포도와 참외 문양에는 자손 번창의 바람이 담겼다.

서양 문화 속 식물 상징도 함께 소개된다. 올리브는 평화와 풍요를, 호랑가시나무는 희생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계명대 교목인 은행나무와 교화인 이팝나무꽃, 캠퍼스 자생 수목 120여 종 이야기를 함께 다루며 과거와 현재의 자연을 연결

김권구 행소박물관장은 "식물 문양 속에 담긴 옛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라며 "관람객들이 일상 속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
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저작권자 © 경상매일

국민일보

인쇄 취소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 특별전

입력 2026-05-18 11:08

남궁현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식물과 상징 특별전 유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계명대 제공

대구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계명대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8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 특별전시실 동곡실에서 열리는 특별전은 오랜 세월 인간의 삶과 함께해 온 식물을 주제로 옛사람들이 식물에 부여한 상징과 의미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화·도자기·공예품 등에 표현된 식물 길상문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하며 더 나은 삶을 바랐던 인간의 보편적 염원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에는 행소박물관이 소장한 식물 길상문 관련 유물 약 70여점이 소개된다. 주요 전시품은 매화가 표현된 조선 후기 꽃과 새 그림, 연꽃이

새겨진 고려시대 청자 항아리, 모란 그림, 소나무가 표현된 찬합, 대나무를 인두로 그린 꽃과 새 그림, 낭곡 최석환의 포도 그림, 참외 모양 벼루, 백수백복 그림 등이다.

김권구 행소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식물 문양을 통해 옛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삶을 바랐는지 살펴보는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 속 식물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문의는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다양한 국내외 특별전을 개최하며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DailyDGNews 대구·경북뉴스

교육

계명대학교.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 특별전 개최

계명대학교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총동창회와 공동 개최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등록 2026년05월18일

▲ 남궁현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식물과 상징 특별전 유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계명대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 행소박물관은 계명대학교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14일(목)부터 8월 31일(월)까지 무료로 계명대 행소박물관 특별전시실 동곡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오랜 세월 인간의 삶과 함께해 온 식물을 주제로, 옛사람들이 식물에 부여한 상징과 의미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화·도자기·공예품 등에 표현된 식물 길상문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하며 더 나은 삶을 바랐던 인간의 보편적 염원을 살펴볼 수 있다.

동양에서 식물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삶을 비추는 존재로 이해됐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워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했고, 매화·국화·대나무는 절개와 고결함을 나타내는 식물로 사랑받았다. 서양에서도

올리브는 평화와 풍요를, 호랑가시나무는 고난과 희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식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바람과 믿음, 삶의 태도를 담아내는 상징의 언어로 기능해 왔다.

전시에는 행소박물관이 소장한 식물 길상문 관련 유물 약 70여 점이 소개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매화가 표현된 조선 후기 꽃과 새 그림, 연꽃이 새겨진 고려시대 청자 항아리, 모란 그림, 소나무가 표현된 찬합, 대나무를 인두로 그린 꽃과 새 그림, 낭곡 최석환의 포도 그림, 참외 모양 벼루, 백수백복 그림 등이 포함됐다.

김권구 행소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식물 문양을 통해 옛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삶을 바랐는지 살펴보는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 속 식물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다양한 국제 및 국내 특별전을 개최하며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왔다. 박물관대학 역사문화 강좌, 문화유적답사, 외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 대상 탐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풀과 꽃에 새긴 마음...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 특별전 개최

김하연 기자 | 승인 2026.05.18 10:46

동서양 식물 상징 한자리에... 인간의 삶과 염원 조명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계명대(총장 신일희) 행소박물관은 계명대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5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명대 행소박물관 특별전시실 동곡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오랜 세월 인간의 삶과 함께해 온 식물을 주제로, 옛사람들이 식물에 부여한 상징과 의미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화/도자기/공예품 등에 표현된 식물 길상문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하며 더 나은 삶을 바랐던 인간의 보편적 염원을 살펴볼 수 있다.

동양에서 식물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삶을 비추는 존재로 이해됐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워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했고, 매화/국화/대나무는 절개와 고결함을 나타내는 식물로 사랑받았다. 서양에서도 올리브는 평화와 풍요를, 호랑가시나무는 고난과 희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식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바람과 믿음, 삶의 태도를 담아내는 상징의 언어로 기능해 왔다.

전시에는 행소박물관이 소장한 식물 길상문 관련 유물 약 70여 점이 소개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매화가 표현된 조선 후기 꽃과 새 그림, 연꽃이 새겨진 고려시대 청자 항아리, 모란 그림, 소나무가 표현된 찬합, 대나무를 인두로 그린 꽃과 새 그림, 낭곡 최석환의 포도 그림, 참외 모양 벼루, 백수백복 그림 등이 포함됐다.

어두운 바탕에 매화와 한 쌍의 새를 섬세하게 표현한 꽃과 새 그림은 새봄을 알리는 생명력과 부부의 애정을 함께 담고 있으며, 청자 항아리에 새겨진 연꽃 문양은 청정함과 깨달음의 의미를 전한다. 풍성한 모란 그림은 부귀영화를, 찬합에 새겨진 소나무는 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두로 그린 대나무 그림은 군자의 절개와 담백한 기품을 드러내며, 포도 그림과 참외 모양 벼루는 자손 번창과 가문의 지속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박물관 소장품에 나타난 식물 문양에 그치지 않고, 계명대 교목인 은행나무와 교화인 이팝나무꽃, 캠퍼스에 자생하는 120여 종 수목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 과거와 현재의 자연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권구 행소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식물 문양을 통해 옛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삶을 바랐는지 살펴보는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 속 식물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다양한 국제 및 국내 특별전을 개최하며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왔다. 박물관대학 역사문화 강좌, 문화유적답사, 외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 대상 탐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문의는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하면 된다.

풀과 꽃에 새긴 마음…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 특별전 개최 /사진=계명대 제공

김하연 기자 hy@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 상징 담은 특별전 개최

김진욱 기자 | 승인 2026.05.18 13:33

[사진=계명대학교]

대구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창립 127주년을 맞아 식물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총동창회와 함께 특별전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를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전시실 동곡실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회화와 도자기, 공예품 등에 표현된 식물 문양을 통해 옛사람들이 자연에 담아낸 바람과 삶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에는 매화가 그려진 조선 후기 화조도와 연꽃 문양 고려청자, 모란도, 소나무 문양 찬합, 포도 그림, 참외 모양 벼루 등 식물 길상문 관련 유물 70여 점이 소개된다.

매화와 새를 담은 그림은 생명력과 부부애를, 연꽃 문양은 청정과 깨달음을 상징한다.

또 모란은 부귀영화, 소나무는 장수, 포도와 참외 문양은 자손 번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박물관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계명대 교목인 은행나무와 교화인 이팝나무꽃, 캠퍼스 자생 수목 이야기도 함께 소개해 자연과 인간 삶의 연결성을 조명한다.

김권구 행소박물관장은 "식물 문양 속에는 옛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며 "관람객들이 우리 문화 속 식물 상징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김진욱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패트롤] 경주시-경산시-대구북구-영남대-계명대-iM뱅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5.18 15:27

경주시, 황성공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 본격화…축구장 잔디 교체 추진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6 한마음 가족운동회' 개최....화합·소통의 장 마련
대구 북구, 청년창업기업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참가기업 모집
영남대, '제10회 International EXPO' 개최…글로벌 교류 정보 한자리에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 특별전 개최…식물 길상문의 세계 조명
iM뱅크, 가정의 달 맞아 문화·스포츠 이벤트 확대…삼성라이온즈 초청 행사 진행

경주시, 황성공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 본격화…축구장 잔디 교체 추진

▲경주 황성공원 일원에 위치한 경주시민운동장과 축구공원 전경. 경주시는 노후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제공=경주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사용 연한이 지난 축구장 인조잔디와 시민운동장 시설을 정비해 시민과 체육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황성축구공원 5·6구장에는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노후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한다. 정비 대상 면적은 5구장 8568㎡, 6구장 8452㎡ 규모이며, 인조잔디 철거와 신규 잔디 설치를 비롯해 노후 포장면 보수공사도 함께 진행된다.

해당 구장은 지난 2016년 인조잔디 설치 이후 최대 사용 연한인 10년에 가까워지면서 시설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까지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민운동장 에는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천연잔디와 배수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천연잔디 교체 7885㎡와 배수시설(맹암거) 교체 1619m, 상수도관 교체 등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시민운동장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시민운동장과 황성축구공원, 알천축구장, 생활체육공원 등을 포함해 모두 20개 축구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천연잔디 구장은 9곳, 인조잔디 구장은 11곳이다.

최혁준 권한대행은 “노후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과 체육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체육시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6 한마음 가족운동회' 개최....화합·소통의 장 마련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운동장에서 장애·비장애 아동과 가족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한마음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제공=경산시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운동장에서 장애·비장애 아동과 가족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한마음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구대학교 경산교육특구사업단 과 대구한의대학교 라이즈사업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이 공동 참여했다.

운동회에서는 다양한 체육활동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함께 뛰고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장애·비장애 아동과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원치민 관장은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장애아동 가족과 비장애 아동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장애인 가족 지원과 통합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청년창업기업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참가기업 모집

▲북구청은 오는 6월 5일까지 청년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지원하는 'L.O.G(Launch On-Global) 스케일업 실리콘밸리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제공=대구북구청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은 오는 6월 5일까지 청년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지원하는 'L.O.G(Launch On-Global) 스케일업 실리콘밸리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선정된 청년 스타트업 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현장 중심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업력 7년 미만 청년 창업기업이다.

본사와 지사, 공장, 연구소 가운데 1곳 이상이 북구에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를 북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기업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에 필요한 사전교육과 영문 피치덱(Pitch Deck) 작성·발표 실습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또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KIC 실리콘밸리와 Google, Apple, Stanford University 등 글로벌 기업 및 창업기관을 방문해 현지 창업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기술 혁신 박람회인 TechCrunch Disrupt 2026 참관을 통해 최신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익히고, 현지 투자사 미팅과 비즈니스 상담회에도 참여해 투자 유치와 협력 네트워크 확대 기회를 갖는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 체험형 해외연수가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며 “지역에서 성장한 혁신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남대, '제10회 International EXPO' 개최…글로벌 교류 정보 한자리에

▲영남대학교 제10회 International EXPO 모습. 제공=영남대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는 지난 12일 캠퍼스 천마로 일대에서 '제10회 International EXPO'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국제 교류 참여 기회를 소개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정문에서 시계탑 구간까지 이어진 부스를 중심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국제처 주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소개됐으며, 학생 대상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엑스포에는 15개국 36개 해외 대학의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정보가 제공됐다.

특히 네덜란드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14개국 23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교환학생 34명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자국 대학과 문화, 유학 경험 등을 소개해 학생들의 관

심을 모았다.

또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한국인 학생들도 참여해 지원 절차와 현지 생활, 학업 경험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1대1 상담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지원 자격과 선발 과정, 해외 적응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글로벌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았다.

이와 함께 부스 방문 이벤트와 미션형 경품 행사도 운영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영남대 국제홍보대사 제25기 수습 단원 모집도 현장에서 진행돼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대학 홍보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행사장을 찾은 내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교환학생 간 자연스러운 교류도 이어지며 캠퍼스 국제화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춘영 국제처장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실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장 마련에 집중했다"며 “엑스포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가 학생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춰 학생 수요 중심의 맞춤형 국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남대학교는 2026년 1학기 기준 64개국 588개 대학 및 기관과 국제 교류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18개국 32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교환학생 79명이 수학 중이다. 또 영남대 학생 105명은 14개국 47개 대학에 파견돼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 특별전 개최…식물 길상문의 세계 조명

▲남궁현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식물과 상징 특별전 유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계명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특별전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 특별전시실 동곡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인간의 삶과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식물을 주제로 회화와 도자기, 공예품 등에 표현된 식물 길상문을 통해 옛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염원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양에서 식물은 자연의 이치와 인간 삶을 비추는 존재로 여겨졌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우는 특성으로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했고, 매화와 국화, 대나무는 절개와 고결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랑받았다.

서양에서도 올리브는 평화와 풍요, 호랑가시나무는 희생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등 식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담아내는 상징의 언어로 기능해 왔다.

전시에는 행소박물관이 소장한 식물 길상문 관련 유물 70여 점이 소개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조선 후기 꽃과 새 그림과 고려시대 청자 항아리, 모란 그림, 소나무 문양 찬합, 인두로 표현한 대나무 그림, 낭곡 최석환의 포도 그림, 참외 모양 벼루, 백수백복 그림 등이 포함됐다.

어두운 화면 위에 매화와 한 쌍의 새를 표현한 꽃과 새 그림은 새봄의 생명력과 부부의 애정을 담아냈으며, 청자 항아리에 새겨진 연꽃 문양은 청정함과 깨달음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풍성한 모란 그림은 부귀영화를, 소나무 문양 찬합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단순한 유물 전시에 그치지 않고 계명대학교 교목인 은행나무와 교화인 이팝나무꽃, 캠퍼스에 자생하는 120여 종의 수목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 과거와 현재의 자연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권구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식물 문양을 통해 옛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삶을 꿈꿨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우리 문화 속 식물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 속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 이전 이후 다양한 국제·국내 특별전과 역사문화 강좌, 문화유적답사, 외국인 유학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 플랫폼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된다.

iM뱅크, 가정의 달 맞아 문화·스포츠 이벤트 확대…삼성라이온즈 초청 행사 진행

▲iM뱅크 5월 가족의달 이벤트 홍보 포스터. 제공= iM뱅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삼성라이온즈 야구 경기 초청과 영화 관람권, OTT 이용권 제공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연고 구단인 삼성 라이온즈 와 연계한 스포츠 문화 행사와 함께 금융 혜택을 문화·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오는 3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에서 '삼성라이온즈 iM뱅크 스폰서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중은행 전환 2주년을 기념해 '금융의 경계를 넘어 전국으로 홈런!'을 콘셉트로 진행된다.

iM뱅크는 앱에서 개인(신용)정보 활용과 문자·전화 안내에 동의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삼성라이온즈파크 3루 SKY상단 지정석 티켓(1인 2매)을 제공한다.

또 우수 고객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초청 행사도 함께 마련해 지역 상생 의미를 더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라이온즈 스윗박스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진행된다.

행사는 모두 3차례 경기 일정에 맞춰 운영되며, 이미 진행된 5월 16일 경기에 이어 오는 5월 31일과 6월 13일 경기의 스윗박스 티켓을 추첨 제공한다.

참여 조건은 앱 마케팅 푸시 동의와 입출금 통장 잔액 유지 등 회차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iM뱅크는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이벤트도 실시한다.

iM뱅크 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를 신청한 고객은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LG오브제컬렉션 가전제품과 총 625만원 규모 추가 지원금,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신규 앱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TVING 최대 5개월 무료 이용권과 CGV 영화 관람권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강정훈 은행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 일상과 맞닿은 생활밀착형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을 넘어 스포츠와 문화, 엔터테인먼트 영역까지 브랜드 경험을 확장해 전국 고객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jmson220@ekn.kr)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

프린트 취소

취소 인쇄하기

'식물과 상징' 특별전, 계명대에서 만나는 자연과 문화의 만남

등록 2026-05-18 오후 12:58:36
수정 2026-05-18 오후 12:58:36
홍석천 기자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대학 창립 127주년을 맞아 식물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특별전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특별전시실 동곡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회화·도자기·공예품 등에 표현된 식물 문양을 통해 옛사람들의 바람과 삶의 태도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간 삶과 밀접했던 식물이 단순 장식 요소를 넘어 장수·부귀·절개·다산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은 상징체계로 활용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시에는 행소박물관 소장 유물 70여 점이 소개된다. 매화가 그려진 조선 후기 화조도와 연꽃 문양이 새겨진 고려 청자 항아리, 모란도, 소나무 문양 찬합, 대나무를 인두로 표현한 그림, 낭곡 최석환의 포도 그림, 참외 모양 벼루, 백수백복도 등이 포함됐다.

남궁현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식물과 상징 특별전 유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계명대)

대표 전시품인 화조도는 매화와 한 쌍의 새를 통해 새봄의 생명력과 부부 화합의 의미를 담아냈다. 고려 청자 항아리의 연꽃 문양은 청정과 깨달음을 상징하며, 모란 그림은 부귀영화를 뜻한다. 소나무 문양은 장수를, 포도와 참외 형상의 작품은 자손 번창과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는 동서양 식물 상징도 함께 비교해 소개한다. 동양에서 매화·국화·대나무 등이 절개와 군자의 품격을 상징했다면, 서양에서는 올리브가 평화와 풍요를, 호랑가시나무가 희생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박물관 소장품에 그치지 않고 대학 캠퍼스의 자연과 연결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계명대 교목인 은행나무와 교화인 이팝나무꽃, 캠퍼스에 자생하는 120여 종 수목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 과거 유물 속 자연과 현재 생활 속 자연을 이어주는 구성으로 꾸며졌다.

지역 대학 박물관들이 최근 단순 전시 기능을 넘어 시민 문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계명대 행소박물관 역시 역사문화 강좌와 문화유적 답사, 외국인 유학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김권구 행소박물관장은 "식물 문양을 통해 옛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삶을 바랐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라며 "관람객들이 일상 속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공휴일에도

정상 개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뉴스 http://ihknews.kr

풀과 꽃에 새긴 마음…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 특별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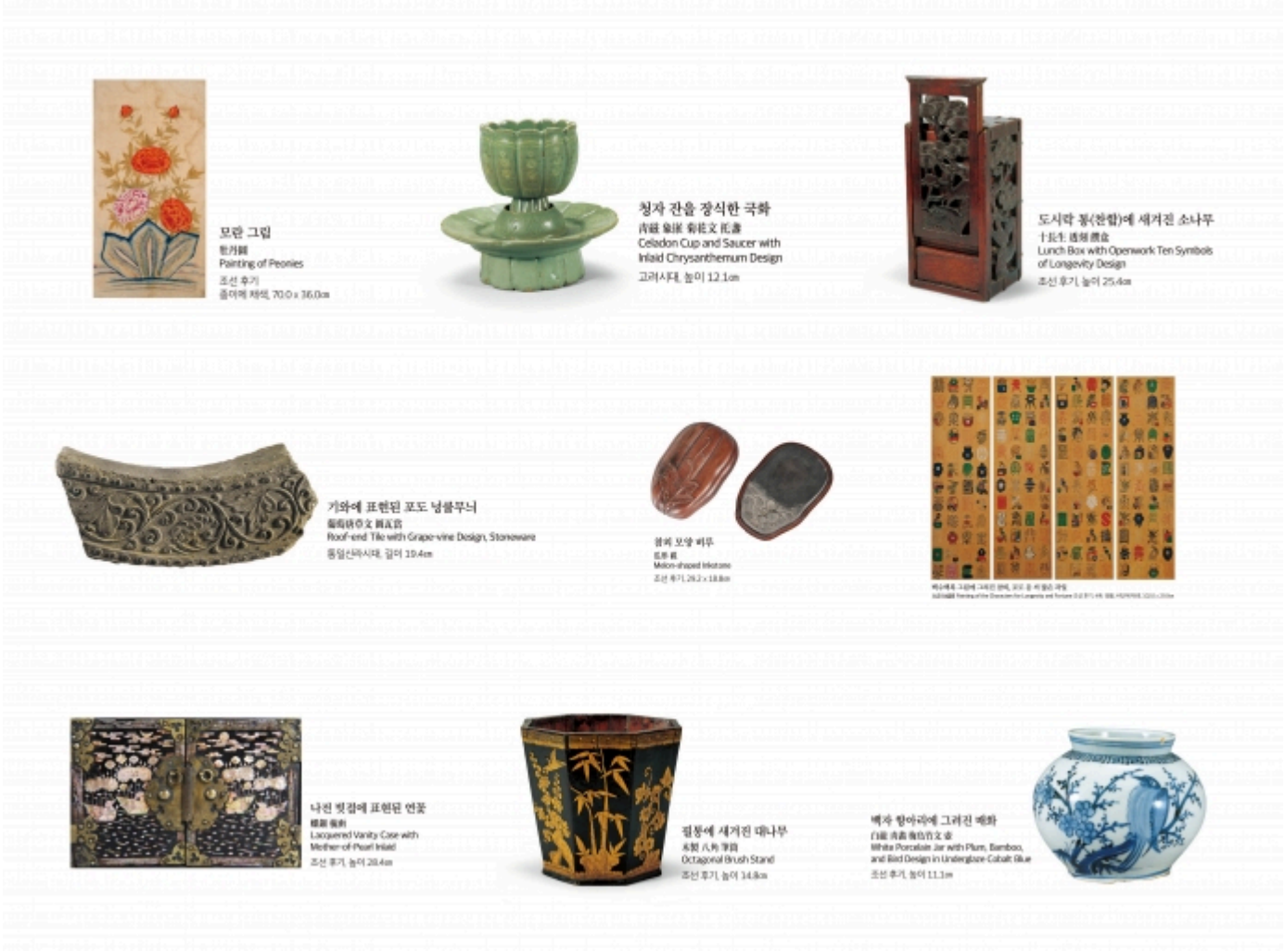
뉴스일자 : 2026년05월18일 22시48분

▲ 사진) 남궁현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식물과 상징 특별전 유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동서양 식물 상징 한자리에… 인간의 삶과 염원 조명

- 소장 유물 70여 점 공개, 캠퍼스 수목 이야기까지 확장 전시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 행소박물관은 계명대학교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5월 14일(목)부터 8월 31일(월)까지 계명대 행소박물관 특별전시실 동곡실에서 열린다.



▲ 사진)계명대 행소박물관은 계명대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5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식물과 상징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오랜 세월 인간의 삶과 함께해 온 식물을 주제로, 옛사람들이 식물에 부여한 상징과 의미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화·도자기·공예품 등에 표현된 식물 길상문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하며 더 나은 삶을 바랐던 인간의 보편적 염원을 살펴볼 수 있다.

동양에서 식물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삶을 비추는 존재로 이해됐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워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했고, 매화·국화·대나무는 절개와 고결함을 나타내는 식물로 사랑받았다. 서양에서도 올리브는 평화와 풍요를, 호랑가시나무는 고난과 희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식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바람과 믿음, 삶의 태도를 담아내는 상징의 언어로 기능해 왔다.

전시에는 행소박물관이 소장한 식물 길상문 관련 유물 약 70여 점이 소개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매화가 표현된 조선 후기 꽃과 새 그림, 연꽃이 새겨진 고려시대 청자 항아리, 모란 그림, 소나무가 표현된 찬합, 대나무를 인두로 그린 꽃과 새 그림, 낭곡 최석환의 포도 그림, 참외 모양 벼루, 백수백복 그림 등이 포함됐다.

어두운 바탕에 매화와 한 쌍의 새를 섬세하게 표현한 꽃과 새 그림은 새봄을 알리는 생명력과 부부의 애정을 함께 담고 있으며, 청자 항아리에 새겨진 연꽃 문양은 청정함과 깨달음의 의미를 전한다. 풍성한 모란 그림은 부귀영화를, 찬합에 새겨진 소나무는 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두로 그린 대나무 그림은 군자의 절개와 담백한 기품을 드러내며, 포도 그림과 참외 모양 벼루는 자손 번창과 가문의 지속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박물관 소장품에 나타난 식물 문양에 그치지 않고, 계명대학교 교목인 은행나무와 교화인 이팝나무꽃, 캠퍼스에 자생하는 120여 종 수목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 과거와 현재의 자연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권구 행소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식물 문양을 통해 옛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삶을 바랐는지 살펴보는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 속 식물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다양한 국제 및 국내 특별전을 개최하며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왔다. 박물관대학 역사문화 강좌, 문화유적답사, 외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 대상 탐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문의는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하면 된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ihknews.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일간 경북신문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 특별전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 수정 2026.05.18 19:11

소장 유물 70여 점 공개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계명대학교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지난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명대 행소박물관 특별전시실 동곡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오랜 세월 인간의 삶과 함께해 온 식물을 주제로, 옛사람들이 식물에 부여한 상징과 의미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화·도자기·공예품 등에 표현된 식물 길상문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하며 더 나은 삶을 바랐던 인간의 보편적 염원을 살펴볼 수 있다.
동양에서 식물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삶을 비추는 존재로 이해됐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워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했고, 매화·국화·대나무는 절개와 고결함을 나타내는 식물로 사랑받았다.
서양에서도 올리브는 평화와 풍요를, 호랑가시나무는 고난과 희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식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바람과 믿음, 삶의 태도를 담아내는 상징의 언어로 기능해 왔다.
전시에는 행소박물관이 소장한 식물 길상문 관련 유물 약 70여 점이 소개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매화가 표현된 조선 후기 꽃과 새 그림, 연꽃
시대 청자 항아리, 모란 그림, 소나무가 표현된 찬합, 대나무를 인두로 그린 꽃과 새 그림, 낭곡 최석환의 포도 그림, 참외 모양 벼루, 백수백복
됐다.
어두운 바탕에 매화와 한 쌍의 새를 섬세하게 표현한 꽃과 새 그림은 새봄을 알리는 생명력과 부부의 애정을 함께 담고 있으며, 청자 항아리에
양은 청정함과 깨달음의 의미를 전한다. 풍성한 모란 그림은 부귀영화를, 찬합에 새겨진 소나무는 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나무 그림은 군자의 절개와 담백한 기품을 드러내며, 포도 그림과 참외 모양 벼루는 자손 번창과 가문의 지속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박물관 소장품에 나타난 식물 문양에 그치지 않고, 계명대학교 교목인 은행나무와 교화인 이팝나무꽃, 캠퍼스에 자생하는 1
야기를 함께 소개해 과거와 현재의 자연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권구 행소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식물 문양을 통해 옛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삶을 바랐는지 살펴보는 자리"라며 "관람객들
우리 문화 속 식물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다양한 국제 및 국내 특별전을 개최하며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
학 역사문화 강좌, 문화유적답사, 외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 대상 탐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문화 플랫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문의는 행
구팀(053-580-6992~3)으로 하면 된다.박경철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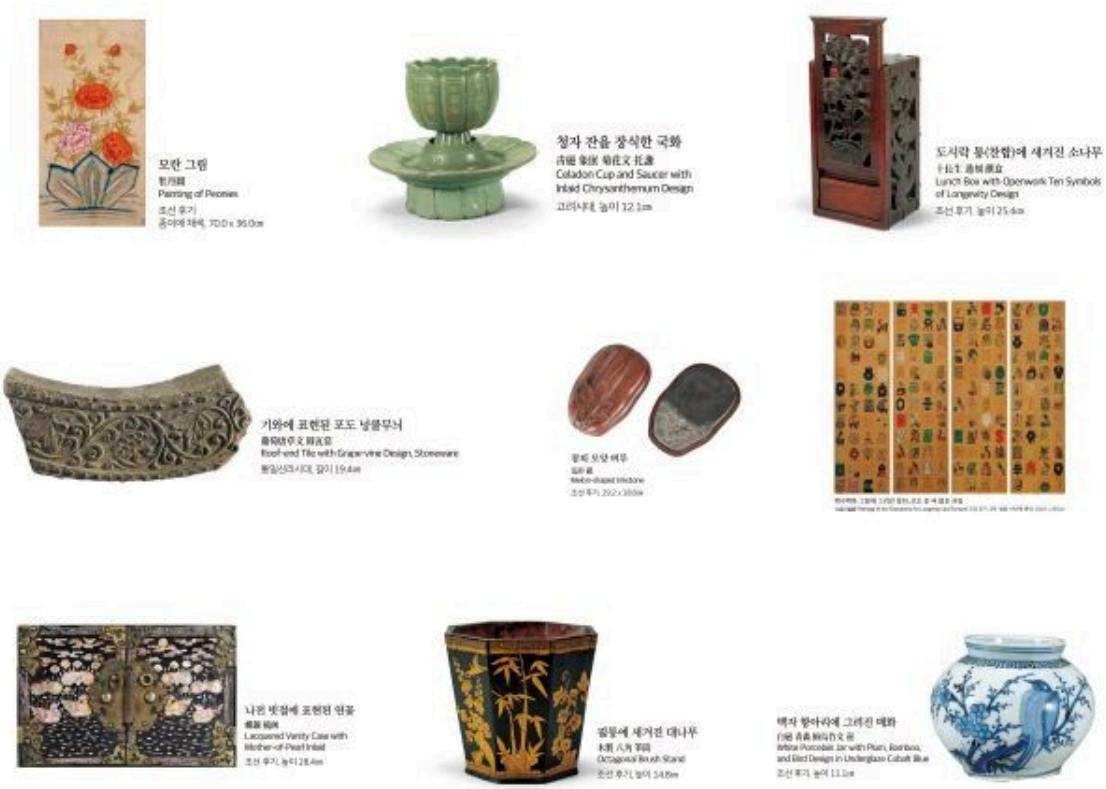
프라임경제

'풀과 꽃에 새긴 마음'···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 특별전 개최

동서양 식물 상징 한자리에...소장 유물 70여 점 공개, 캠퍼스 수목 이야기까지 확장 전시

기사입력 2026.05.18 10:46:21 | 최종수정 2026.05.18 10:46:21 |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프라임경제]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 행소박물관은 계명대학교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5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계명대 행소박물관 특별전시실 동곡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오랜 세월 인간의 삶과 함께해 온 식물을 주제로, 옛사람들이 식물에 부여한 상징과 의미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화·도자기·공예품 등에 표현된 식물 길상문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하며 더 나은 삶을 바랐던 인간의 보편적 염원을 살펴볼 수 있다.

동양에서 식물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삶을 비추는 존재로 이해됐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워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했고, 매화·국화·대나무는 절개와 고결함을 나타내는 식물로 사랑받았다.

서양에서도 올리브는 평화와 풍요를, 호랑가시나무는 고난과 희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식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바람과 믿음, 삶의 태도를 담아내는 상징의 언어로 기능해 왔다.

전시에는 행소박물관이 소장한 식물 길상문 관련 유물 약 70여 점이 소개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매화가 표현된 조선 후기 꽃과 새 그림, 연꽃이 새겨진 고려시대 청자 항아리, 모란 그림, 소나무가 표현된 찬합, 대나무를 인두로 그린 꽃과 새 그림, 낭곡 최석환의 포도 그림, 참외 모양 벼루, 백수백복 그림 등이 포함됐다.

어두운 바탕에 매화와 한 쌍의 새를 섬세하게 표현한 꽃과 새 그림은 새봄을 알리는 생명력과 부부의 애정을 함께 담고 있으며, 청자 항아리에 새겨진 연꽃 문양은 청정함과 깨달음의 의미를 전한다. 풍성한 모란 그림은 부귀영화를, 찬합에 새겨진 소나무는 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두로 그린 대나무 그림은 군자의 절개와 담백한 기품을 드러내며, 포도 그림과 참외 모양 벼루는 자손 번창과 가문의 지속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박물관 소장품에 나타난 식물 문양에 그치지 않고, 계명대학교 교목인 은행나무와 교화인 이팝나무꽃, 캠퍼스에 자생하는 120여 종 수목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 과거와 현재의 자연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권구 행소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식물 문양을 통해 옛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삶을 바랐는지 살펴보는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 속 식물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다양한 국제 및 국내 특별전을 개최하며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왔다. 박물관대학 역사문화 강좌, 문화유적답사, 외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 대상 탐방·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문의는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하면 된다.

최병수 기자 (fundcbs@hanmail.net)
Copyright ⓒ 2005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HOME > 대구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 특별전 개최

우성문 기자 | 승인 2026.05.19 18:07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 특별전 개최 [대구]
B tv 뉴스

다음에서 보기:

계명대학교가 창립 127주년을 기념해 행소박물관에서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식물과 상징, 식물 길상문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선 행소박물관이 소장한 식물 길상문 관련 유물 70여 점이 소개됩니다.

전시품에는 조선 후기 꽃과 새 그림, 연꽃이 새겨진 고려시대 청자 항아리, 모란 그림과 소나무가 표현된 찬합, 대나무를 인두로 그린 꽃과 새 그림, 낭곡 최석환의 포도 그림, 참외 모양 벼루, 백수백복 그림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성문 기자

저작권자 © B 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푸른신문 와이드인

“풀과 꽃에 담긴 마음” 자연에 담은 옛사람들의 바람

-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 상징 담은 특별전…동서양 길상문 유물 70여 점 공개

기사 입력 2026-05-21 11:20:57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총동창회와 함께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 특별전을 오는 8월 31일(월)까지 동곡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회화, 도자기, 공예품 속 식물 문양을 통해 옛사람들의 자연 인식과 삶의 가치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전시에서는 연꽃, 매화, 국화, 대나무 등 동양의 상징 식물과 올리브, 호랑가시나무 등 서양의 식물 의미를 함께 소개한다. 연꽃은 청정과 깨달음, 매화·국화·대나무는 절개와 고결함을, 올리브는 평화와 풍요, 호랑가시나무는 영원성과 희생을 상징한다.

행소박물관 소장 유물 약 70여 점도 공개된다. 조선 후기 꽃과 새 그림, 고려시대 청자 연꽃 항아리, 모란도, 소나무 찬합, 대나무 그림, 포도도, 참외 모양 벼루 등을 통해 식물 상징과 미감을 확인할 수 있다.

매화와 새 그림은 생명력과 화합을, 연꽃 청자는 청정과 깨달음을, 모란도는 부귀영화를 의미한다. 소나무는 장수, 대나무는 절개, 포도와 참외 벼루는 번창과 가문의 지속을 상징한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 유물뿐 아니라 캠퍼스 자연으로도 확장된다. 교목 은행나무, 교화 이팝나무꽃, 교내 자생 수목 120여 종을 함께 소개해 과거와 현재의 자연을 연결했다.

김권구 행소박물관장은 “식물 문양에는 옛사람들의 삶의 바람이 담겨 있다.”며 “자연과 문화 속 상징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에도 정상 개관한다.

모란 그림
牡丹圖
Painting of Peonies
조선 후기
종이에 채색, 70.0 x 36.0cm

청자 잔을 장식한 국화
靑磁 象嵌 菊花文 托盞
Celadon Cup and Saucer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시대, 높이 12.1cm

도시락 통(찬합)에 새겨진 소나무
十長生 透刻 饌盒
Lunch Box with Openwork Ten Symbols of Longevity Design
조선 후기, 높이 25.4cm

기와에 표현된 포도 넝쿨무늬
葡萄唐草文 圓瓦當
Roof-end Tile with Grape-vine Design, Stoneware
통일신라시대, 길이 19.4cm

참외 모양 벼루
瓜形 硯
Melon-shaped Inkstone
조선 후기, 29.2 x 18.8cm

나전 빗접에 표현된 연꽃
螺鈿 梳函
Lacquered Vanity Case with Mother-of-Pearl Inlaid
조선 후기, 높이 28.4cm

팔풍에 새겨진 대나무
木製 八角 筆筒
Octagonal Brush Stand
조선 후기, 높이 14.8cm

백자 항아리에 그려진 매화
白磁 靑畵 梅竹文 壺
White Porcelain Jar with Plum, Bamboo, and Bird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조선 후기, 높이 11.1cm

푸른신문와이드인 http://prsinmun.co.kr/news/view.php?idx=79377

생활문화 대구MBC NEWS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과 상징' 특별전 개최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22 13:30:00 조회수 71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은 대학 창립 127주년 기념으로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 특별전을 엽니다.

오랜 세월 인간의 삶과 함께하며 회화, 도자기, 공예품 등에 표현된 동서양 식물의 상징과 의미를 조명합니다.

많이 본 뉴스

이재명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나...
윤영균 2026년 06월 08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오세훈·'...
윤영균 2026년 06월 0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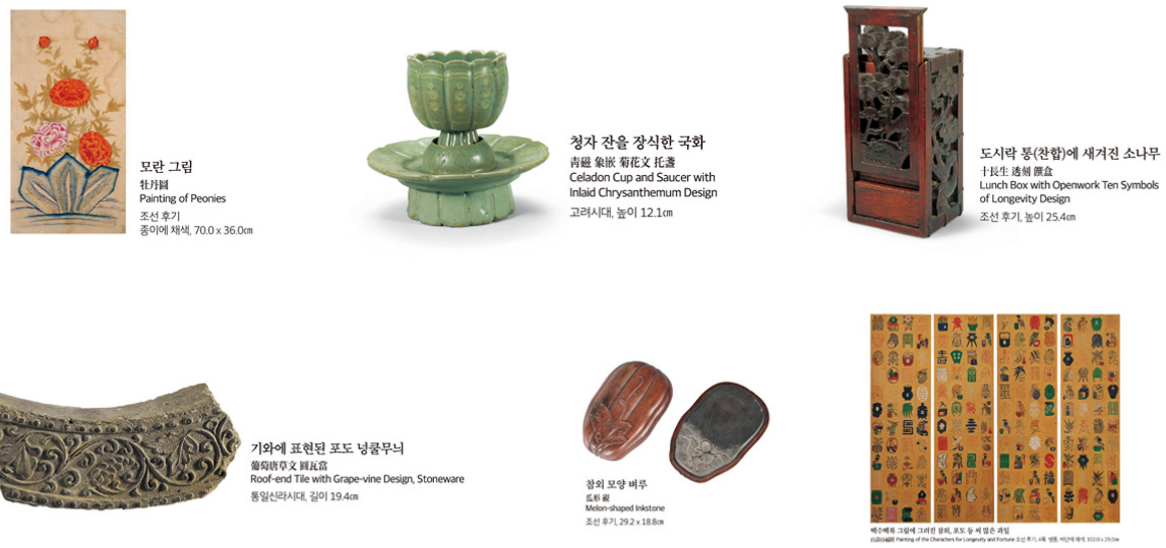
트럼프의 자제 요청에도…이란 "...
윤영균 2026년 06월 0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추경호 "시...
권윤수 2026년 06월 08일

[토크ON] ② 민선 9기, 지역 정치...
김은혜 2026년 06월 08일

최신뉴스

[약손+] 제2의 심장이 뛴다 '맨발 ...



박물관이 소장한 연꽃무늬 고려청자 항아리, 조선 후기 매화·모란·대나무 그림, 참외 모양 벼루 등 옛사람들의 부귀영화, 장수, 자손 번창의 염원이 담긴 유물 70여 점이 공개됩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관람입니다.

계명대학교 # 행소박물관 # 식물과상징 # 길상문의세계 # 연꽃무늬고려청자항아리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녹색당 기초의원...
한태연 2026년 06월 09일

[만평] 대구·경북 광역의회 국민의...
한태연 2026년 06월 09일

[만평] 추경호 당선인 "민생 살리기...
한태연 2026년 06월 09일

대구서도 1곳 투표 중단…대구시선...
변예주 2026년 06월 09일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 등록

회사명 :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우편번호) 42288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길 56 대구문화방송 053-740-9500

Copyright 2025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계명대 행소박물관, 식물에 담긴 인간의 염원과 삶의 의미 조명 특별전 열어

백운용 기자 | 승인 2026.05.23 15:09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유물 70여 점 전시

사진제공=계명대학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5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식물에 담긴 인간의 염원과 삶의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창립 127주년을 맞이하는 계명대학교는 '식물과 상징–식물 길상문의 세계' 전시를 열고 동서양의 식물이 상징하는 인간의 바람과 믿음, 삶의 태도를 담아내는 유물 7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매화·연꽃·대나무·모란·포도·참외백수백복 등 식물 문양이 새겨진 회화와 도자기, 공예품 등을 통해 부부의 애정, 청정함, 군자의 절개, 장수, 부귀영화, 자손 번창 등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다.

또 은행나무와 교화인 이팝나무꽃, 캠퍼스에 자생하는 120여 종 수목 이야기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자연을 연결해 인간의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백운용 기자 paekting@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